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23. 11. 9. (목), 15: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심의사항】

- 1 세계기록유산 국외반출허가 심의

## 【검토사항】

- 2 공주 신관동 주변 주상복합 건설 관련 세계유산 영향분석 검토



심 의 사 항



## 1. 세계기록유산 국외반출허가 심의

### 가. 제안사항

세계기록유산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충남-일본 시즈오카현 우호교류협정 10주년 기념하여, 일본에서 충남문화유산 특별전시를 개최하고자 201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통신사> 기록물 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소장하고 있는 <신미통신일록> 1권 3책 일본으로 국외반출 허가를 요청해 옵니다.
- 관계전문가 상태점검 조사(2023.10.3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에서 국외반출 허가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남도유형문화재(2013 지정), 세계기록유산(2017 등재, 조선통신사 기록물)
- 명 칭 : 통신사등록: 신미통신일록(辛未通信日錄)
- 의 의 : 1811년에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된 마지막 통신사임. 신미통신일록은 개인의 감회를 담은 일기, 시가내용 등 개인적 차원에서 제작된 기록과 비변사, 호조, 감영, 수영 등의 관청이 서로 주고받은 공문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국가에서 외교문서를 집성한 통신사등록과 개인 기록물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자료임
- 소유자(관리자) :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대표자: 김기영)
- 조성연대 : 조선시대(1811년)(순조11년)
- 제 작 자 : 김이교(金履喬, 1764~1832)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         |   |  |
|---------|---|--|
| 명 칭     | 신미통신일록  |  |
| 수 량     | 3   |  |
| 규 격     | 33.6×22.6cm   |  |
| 소 유 자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
| 보 관 장 소 | 32589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103 (금홍동)<br>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수장고동   |  |
| 비 고     | - 2017년 UNESCO 세계기록유산 목록 등재(조선통신사 기록물)<br>- 충청남도유형문화재 "김이교 유물 일괄(20점)"에 포함(2013년 지정)<br>-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충청남도역사박물관) 소장 및 소유(2007년 구입) 유물<br>- 총 3책(3권) |  |

## 라. 조사단 의견서

# 상태점검 조사단 의견서

### ○ 보존상태

1. 신미통신일록은 지류유산으로 책표지 일부 책벌레 손상이 보이고, 특히 3책(인편)은 표지 좌하단에 내지4-5면까지 손상이 보임. 충남역사박물관 내 상설전시 등 잦은 대출전시로 인하여 전시표면에 탈색현상이 관찰됨.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태임
2. 3책 모두 손상되었으나, 2권과 3권의 손상정도가 심함. 3권(인편)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태이며, 반출을 위해 포장 및 호송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봄
3. 손상 부분에 관한 수리복원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보임. 향후 일정기간 동안 외부 전시대여를 중단하여 휴지기를 갖고 전시용으로 사용할 별도의 복제본 제작이 필요해 보임

### ○ 보존가치

1. 『신미통신일록』은 개인의 감회나 견문은 배제하고 사행 관련 공문서 내용, 사행 비용과 물품, 사행 선박의 규모와 재원 등 통신사행의 공적인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책이 손상되어 내용이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2. 통신사 파견 직전단계인 1809년 8월 27일자 강정교섭부터 시작하여 통신사행이 대마도에서 국서를 전달하고 돌아올 때까지 190여 일에 대한 기록으로 주제별 총 3책에 걸쳐 기록. 앞서 제작된 통신사기록과 달리 비변사, 호조, 감영, 수용 등 관청이 서로 주고받은 공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 ○ 활용가치

1. 조선통신사기록물은 한·일양국간 교류의 증거물로 일본국에서 전시하는 것은 한일 양국의 역사를 통한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효과가 있을 것임
2. 세계기록유산으로 특히 ‘조선통신사’ 기록물로써 큰 관심이 예상됨. 국외 전시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보존상태로 인한 우려도 공존함
3. 외국에서 전시될 경우, 조선 후기 대일(對日) 통신사 파견의 역사, 통신사의

활동 양상, 통신사행의 준비 과정, 한일 관계에 조선통신사가 끼친 영향 등을 해외에 전파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상태점검 대한 종합의견

1. 충청남도과 일본국 시즈오카현 우호교류 10주년을 맞이하여 소개한 사업으로 전시의 기획 취지 및 전시를 통한 한일 간 우호 증진 등의 효과를 고려할 때 『신미통신일록』의 해외 전시 반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유물 반출을 위한 사전준비, 유물이동, 전시계획 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3책(인편)의 경우 표지와 내지 일부에 걸친 훼손 상태가 계속 진행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대상물 적정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유물이동에 필요한 포장, 해체 및 전시과장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유물관리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여 안정성 확보와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함
2. 다만, 제3책의 경우 손상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여 이대로 반출하여 해외에서 전시할 경우, 우리나라의 기록문화재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현재 상태로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됨. 전시 일정이 촉박하여 반출 전에 수리·복원 조치를 하는 것도 불가능함  
이에 따라, 『신미통신일록』을 해외 전시에 반출하되, 손상이 심각한 제3책은 제외하고 제1~2책만 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검 토 사 항



## 2. 공주 신관동 주변 주상복합 건설 관련 세계유산 영향분석 검토

### 가. 제안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공산성) 주변에 주상복합 건물사업에 대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공산성) 주변 주상복합건물 신축계획 관련,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제3차 회의('23.4.13.) 의결에 따라 공주시가 신청인의 세계유산영향평가 보고서 및 중점경관관리 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해당사항에 대한 문화재청의 검토 의견을 요청('23.10.23.)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세계유산 개요

- 세계유산(구성요소)명 :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공산성)
- 문화재명 : 공주 공산성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금성동 53-12

(3) 신청내용(사업개요)

- 사업명 :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8 주상복합 신축공사
- 대지위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8번지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도시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저축, 중점경관관리구역
- 대지면적 : 17,000.20㎡, 연면적 : 205,965.0439㎡(지상135,692.3014㎡/지하70,272.7425㎡)
- 건축면적 : 10,703.5214㎡
- 용적률/건폐율 : 784.29%(법정: 800%이하) / 63.96%(법정: 80%이하)
- 세대수(규모)/구조 : 929세대(지하5층, 지상46층)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그간의 추진경과(문화재청↔공주시)

- ('21.1월) 608부지 내 주상복합건물 신축신청에 대한 의견요청(공주시→문화재청)
- ('21.2월) 「세계유산협약」 및 관련규정 종합검토 후 적의조치 할 것(문화재청→공주시)
- ('22.7.12) 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 사적분과) 합동 현지조사
  - 조사결과 : 주상복합 개발사업 관련 세계유산 영향평가 추진경과 확인필요
  - 공주시 : 사업시행자 측에서 세계유산 영향평가 시행하고 있음 회신('22.7.21)
- ('23.1.3) 충남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의견요청(공주시→문화재청)
- ('23.1.19) 문화재청 의견 제출(문화재청→공주시)

- 주요내용 : 공주시 제출 자료 불충분, '22년 유네스코 발간자료를 참고하여 영향평가 실시권장, 유네스코와의 사전협의를 위한 Scoping Report 제출요청
- ('23.2.27) 추가 보완자료 제출(공주시→문화재청)
- ('23.3.9)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보류
  - 의결사항 : 영향평가자료의 내용과 요건이 불충분하므로 보완 후 재검토 필요
- ('23.4.13)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보류
  - 의결사항 : 본 개발계획은 공산성이 지니는 세계유산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HIA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
- ('23.10.23) 영향평가 보고서 및 공주시 의견 제출(공주시→문화재청)

(5) 신청인 제출 자료 및 지자체 의견

**<신청인 : 세계유산 영향평가 보고서>**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속성에 미치는 영향, 진정성과 완전성에 미치는 영향, 기타 지역적 차원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역사적 맥락들을 평가해본 결과, 본 프로젝트가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경관적 속성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경관적 측면에서도 시각영향평가 결과(VIA) 수도의 방어를 위해 주된 조망이 필요한 차령고개와의 관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현재 도시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기(인구유입, 도시기능 활성화 등)를 불어넣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백제역사도시의 가치를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주시청 :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 신관동 608번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은 관련 법률 및 지침상 불부합함에 따라 별도의 관리계획 수립은 어려움
- 신관동 608번지 주상복합 신축건은 이미 경관·건축심의가 완료된 사안이며, 2021년 고시된 공주시 경관계획의 금강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서 현재와 같이 연면적 330㎡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등을 통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및 스카이라인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됨